

사료수급과 가격전망

조 롱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사료수요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원료의 품저현상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원료인 옥수수도 당초 48만톤 도입 계획이던 것이 56만톤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추세로 사료수요가 신장된다면 이월량 10만톤 금년 도입계획 56만톤으로도 연말까지 공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추측된다. 즉 단백질사료와 강류사료가 부족하니까 가장 값이 싼 옥수수가 더 많이 소비되고 있다. 현재 거국적으로 물자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가축사료는 원료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사료성분상으로 볼 때 과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와같은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세계적인 자원파동과 인플레이에 의한 불경기 때문에 사료수요가 90만톤 수준에서 정체되었고 90만톤 수준의 배합사료를 생산하려면 국내산원료에다 도입대두박 2만톤만 있으면 단백질사료는 원활히 유통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재료를 가지게 되나 금년도에도 배합사료수요량이 전년도대비 40만톤 가까이 증가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대두박 공급량을 6만톤으로

늘린다해도 4만톤이 증가한 대두박으로는 25만톤의 배합사료밖에 생산하지 못하게 되므로 추가배합사료 10~15중만톤생산에 필요한 단백질사료로 1.5~2.5만톤의 부족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사료수급계획을 조정하여 대응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사료자원의 낭비와 외화의 무모한 소비만을 조장하고 사료는 영양적인 균형이 파괴되어 가축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농가소득의 감소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1. 사료원료의 국제동향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있는바와 같이 영국

을 비롯한 구라파국가가 한발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호주의 한발로 극심한것 같다. 그러나 미국 소련 중공등이 비교적 작황이 순조로워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것 같다. 1976. 8. 1 현재 미국의 작황을 보면 전년대비 옥수수 7.3% 수수 4.1%가 증산에상되고 있으나 지난해에 대두시세가 옥수수에 비하여 불리하였기 때문에 대두재배면적의 감소로 11.6%가 감소에상되고 있다. 따라서 곡류사료보다도 페루어 어획부진 미국산 대두의 생산량 감소 및 기후조건악화로 주요유지생산국가의 금년도 유지작물 수확이 타격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경우에는 가격의 계속적인 앙등이 불가피 하리라 본다. 8/18현재 미국의 옥수수 시세는 한국도 착기준이 9월선적에 \$133, 12월선적에 \$130, 77년 3월선적에 \$132을 호가하고 있으며 대두박은 9월선적 \$239, 12월선적 \$245 1월선적에 \$247을 호가하고 있어 신곡이 출회되면 약간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어때까지나 기후조건이 수확시까지 순조롭고 또한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밖에 소맥은 9월선적에 \$137, 12월선적에 \$142, 3월선적에 \$146을 호가하고 있는바 이는 금년산 소맥은 세계적으로 가장 풍작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분간은 안정되지 않을까 추측되나 사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국내 소맥분 수요의 증감여하에 있는 것이다.

2. 배합사료 생산추세

금년도 상반기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전년 동기간과 대비하여 보면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양계용 배합사료는 50.9%가 증가하였다 이를 용도별로 세분하여 보면 육추

〈표 1〉 1975. 8. 1 현재 미국의 사료곡물작황

	경작면적 (천에이커) 상면적	수확예상량(천톤)			(B/A)
		1975(A)	1976. 7. 1	1976. 8. 1(B)	
콩	53,606	41,381	34,816	36,566	88.4
옥수수	66,905	146,482	166,428	157,149	107.3
전소맥	69,656	58,039	55,500	57,005	98.2
수수	15,484	19,265	—	20,048	104.1
히리	13,650	10,116	7,684	8,448	83.5
보리	8,711	8,349	6,789	7,423	88.9
호밀	1,814	454	431	442	97.4
야마인	1,500	370	—	172	46.5
쌀	2,802	2,604	2,222	2,248	80.2

용 사료가 64.0% 성계용사료가 45.1% 육계용사료가 60.8%씩 각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별로 전년 동월 생산량과의 증가율을 보면 1~3월까지 35.7%가 증가한데 비하여 4월에는 78.9%, 5월에는 70.8%, 6월에는

50.9%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료전체적으로는 상반기중에 41%의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양계를 제외한 양돈 낙농 비육우 및 농축사료의 전체적인 증가율을 보면 25.5%가 증가하고 있는바 양계용 배합사료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75년도 월평균 배합사료생산량은 7.6만톤이었는데 비하여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월평균 10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5월에는 11.1만톤 6월에는 11.4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7월에는 전체적으로 88%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협회 회원의 생산량만도 약 11만톤으로 되므로 7~8월의 전체생산량은 12만톤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와같은 추세로 생산된다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월평균 12만톤 생산은 무난하리라 기대되며, 금년도 생산예상은 130~135톤수준까지 육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표 2〉

1976. 상반기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톤)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 타	계	양계사료 증가율 (%)
	육추용	성계용	육계용	소 계						
75. 1-3	21,214	86,187	16,778	124,179	35,684	39,677	9,772	2,826	213,138	(100)
4	6,459	25,456	6,298	38,213	10,954	11,193	1,958	695	63,013	(100)
5	7,570	28,074	7,704	43,348	11,972	11,940	2,137	1,071	70,468	(100)
6	9,548	31,054	10,205	50,211	10,582	12,120	1,969	683	76,164	(100)
계(A)	44,791	170,791	40,989	256,551	69,192	74,930	15,836	5,274	421,783	(100)
%	(10.6)	(40.5)	(9.7)	(60.8)	(16.4)	(17.8)	(3.8)	(1.2)	(100)	
76. 1-3	29,893	117,238	21,391	168,522	37,383	40,923	9,871	7,550	264,249	(35.7)
4	11,887	43,535	12,949	68,371	13,490	2,964	2,465	7,499	1047,89	(78.9)
5	15,004	44,141	14,881	74,026	13,398	12,272	997	10,430	111,123	(7.8)
6	16,688	42,815	16,702	76,205	14,421	11,713	1,103	10,916	114,358	(50.0)
계(B)	73,472	247,729	65,923	387,124	78,693	77,872	14,436	36,395	594,519	(50.9)
(%)	(12.3)	(41.7)	(11.1)	(65.1)	(13.3)	(13.1)	(2.4)	(6.1)	(100)	
(B/A)%	(64.0)	(45.1)	(60.8)	(50.9)	(13.7)	(3.9)	(△8.8)	(59.0)	(41.0)	

3. 곡류사료 도입현황

1976. 8. 20 현재로 금년도 곡류사료 도입 계획 56만톤을 전량 구매완료하였으며 그중 405,000톤이 이미 도착되었고 잔여 약 16만톤이 9월초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전량 도착하게 된다. 금년도 옥수수 구매단가를 보면 6월까지 도착분 264,000톤은 톤당 \$123~127 8월 도착분 132,000톤은 \$136~143 그리고 앞

으로 도착될 품량 약 16만톤은 평균 \$128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년도의 배합사료 중 도입곡류사료 배합비율을 보면 강피류와 단백질사료의 공급불균형으로 1월에 47.6%를 사용하던것이 2월에 49.2% 3월에 49.0% 4월에 52.1% 5월에 53.9% 6월에 54.5% 7월에 54.3%로 1월대비 7%가량 늘어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추세로 곡류사료 소비가

증가한다면 금년도 56만톤으로 연말까지 공급 가 되므로 그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하여야 할
하기에는 오히려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 것이다.

〈표 3〉 곡류사료 도착예정표

품종별		산지	구매량 톤	C&F가격 \$/톤당	선적월일	도착예정일	차항	\$회출소요액
수	수	미 국	21,187	127.45	8/4	9/3	부산/인천	2,700,283
수	수	미 국	14,430	125.92	8/10	9/30	부산/인천	1,817,026
옥	수	수	44,000	133.60	8/15	9/20	인천	5,878,400
옥	수	수	40,000	125.90	8/19	9/25	부산/인천	5,036,000
옥	수	수	10,000	121.50	9/1-15	9/22	부산	1,215,000
옥	수	수	30,000	125.57	9/10-30	미정		3,761,100
계			159,617	127.855				20,407,809

4. 단미사료 시세

국내 주요단미사료시세를 보면 강류사료와 단미사료의 품기현상으로 크게 폭등하고 있다. 76. 8. 15 시세를 전년 동일자 시세와 비교하여 보면 도입옥수수만이 하락하고 각종 박류사료가 30%전후 양등하였으며 채종박등은 106%나 양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품기현상을 빚고 있으며 강류사료는 80~120%가 양등되고 어분가격도 약 30~50%가 뛰었다. 이를 다시 전월 동일자 시세와 비교해 보면 옥수수가 계속 동일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것을 제외하면 대두박이 9% 채종박이 24% 어분이

2~4%양등되고 호박박 임박등은 거의 품절상태에 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업계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족단백질사료의 과감한 도입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곧 사료가격안정과 품질보장책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5. 전 망

사료수급현황을 살펴 보면 당면 문제점으로서 주원료인 곡류사료를 제외한 모든 부원료가 수급이 원활치 못하고 품저현상 마저 야기되고 있어 배합사료의 원가상승요인을 갖고 오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원료들은 품저현상을 시현하여 구매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원가면에서는 물론 물량면에서도 배합사료생산이 사실상 어려울것이 오늘의 현실이므로 관계당국의 과감한 원료공급대책(물량과 가격)이 조속히 강구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료수급상의 오늘의 현실을 편개하기 어렵고 이와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배합사료의 불합리한 생산으로 오히려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이 조기 확보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현재 배합사료가 가격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품목이 경제기획원장관의 사전 협의대상품목으로 되어 있고 기타 품목이 업계의 자율규제품목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합리적인 원료공급대책과 부원료가격절차방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과연 현행가격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이다.

〈표 4〉 주요 단미사료시세 단위 : 원/kg

종 류	서울지방도매시세			1976. 8. 15 대비 %	
	75. 8. 15	76. 7. 15	76. 8. 15	1975. 8. 15	1976. 7. 15
	옥수수(도입)	96.53	76	76	△21.3
옥수수(국산)	97.00	—	—	—	—
대두박	104.00	116.50	127	22.1	9.0
임 박	76.50	105	—	—	—
호박박	76.50	107	—	37.3	—
채종박	52.50	87	108	1,5.7	24.1
옥수수배아박	56.00	75	77	37.5	2.7
옥수수구루틴	110.00	141	143.50	30.5	1.8
맥 강	48.00	—	—	—	—
탈지강	44.00	79	79	79.5	0
소맥피	21.00	46	46	119	0
어 분(상)	135	197	200	48.1	1.5
어 분(중)	112.50	140	145	28.9	3.6
골 분	85	130	130	53.9	0
인산칼슘 (15%)	140	178	178	127.1	0